

Photo Voice Study on School Bullying of College Students - With the focus o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teaching professionals -

Jung, Jung Ae and 6 others (Kim, No Ybon · Park, Seong Lim
Park, Song Ran · Yi, Mi Jung · Jung, Young Ae · Cho, Eun Jo)

assistant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and 6 others

Background & Purpose: This study is a field study that explores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nd how to cope with it. In the educational field where the importance of school violence is more emphasized, we would like to se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who took school violence subjects.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rengthen desirable countermeasures by exploring in detail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perception and promoting the change in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Methodology/Approach: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 students in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photovoice research procedure through orientation, data collection through photo-taking of research participants, photo selection, conceptualizing, and codifying steps.

Findings/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1 subcategorie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earch topics such a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fter learning school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e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through photo voice was recognized as the importance of interest and prevention and the attitude and importance of active defenders in the passive role of neighbor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participants had divers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nd felt more negative emotions. Second, in the learning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various neighbors in addition to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hird, it was recognized that the role of teachers as the subject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was very important. Fourth, it was considered that social intervention was necessary as an expansion of the perspective on school violence. Therefore, the learning of school violence by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teaching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ir internal motivation to understand and expand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and to play an active role as an active preventer.

Implications: Recognition and coping measures for school bully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will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intervening in school bullying as a College students.

Keywords: College Students, School bullying, Photovoice Study

Corresponding Author: Jung, Jung Ae

assistant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4, Beomil-ro 579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2-3759-504X>

Email: bella@cku.ac.kr

Received: February, 28, 2022 Revised: Jun, 16, 2022 Accepted: Jun, 19, 2022 Publication: Jun, 30, 2022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 교직이수 대학생을 중심으로 -

정정애 외 6명(김노연 · 박성림 · 박송란 · 이미정 · 정영애 · 조은조)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외 6명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을 탐색하는 현장연구이다. 학교폭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과목을 수강한 교직이수 대학생의 인식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구체적인 탐색을 하고 추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취하여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강화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 연구대상은 교직과목 수강생 10명이며 일반적인 포토보이스 연구절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촬영을 통한 자료수집, 사진 선정, 맥락화, 범주화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결론: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을 학습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연구주제에 의해 1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포토보이스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과 주변인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인 방어자의 자세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경험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양했으며, 부정정서를 더 많이 느꼈다. 둘째, 학습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다양한 주변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예방과 개입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의 확대로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직이수 대학생들의 학교폭력 학습은 학교폭력의 이해 및 인식의 확대와 적극적 예방자로서 역할을 자아내는 내적동기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사점: 교직이수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은 대학생으로서 학교폭력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주요어: 대학생, 학교폭력, 포토보이스 연구

교신저자: 정정애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ORCID: <https://orcid.org/0000-0002-3759-504X>
Email: bella@cku.ac.kr

투고일: 2022. 02. 28 **심사일:** 2022. 06. 16 **계재확정일:** 2022. 06. 19 **발행일:** 2022. 06. 30

I. 서 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문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청소년의 폭력과 관련된 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이는 기존 학교폭력의 유형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의 형태가 더욱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사회적 상황과 온라인을 이용한 학교수업 방식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의 범주는 대면과 비대면의 반복적 사회적 상황과 학생들의 상호작용 축소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 및 갈등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등교 수업시 관계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1]교육부에서 조사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2021.9)에 따르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년(2020)대비 학교폭력 경험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으로는 전체적으로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집단따돌림이 감소하였으며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역시 비대면 상황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이 어느 정도 비대면 상황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폭력 유형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 SNS를 통해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지속될 수 있고 이는 다른 폭력을 유발하거나 함께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기에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된 학교폭력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2] 발달단계의 심리적 외상으로 성인기 이후의 대인관계 및 다양한 사회경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3]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유형에 따라 범죄의 성격이 띠기도 하며[4] 성인 범죄 이상의 수위로 치명적인 피해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한 경우가 많다. [5]청소년들 스스로 가해 행동 및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인격적 존중감 부족, 경각심 없는 사건처리로 학창 시절 한때의 치기로 간주하게 될 경우 그 폐해는 다른 사회구성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먼저 교육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 자세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의 일환으로[6] 정부에서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직이수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변화를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예비교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직이수자들이 졸업 후 어린 아동 및 청소년들을 교육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군에 종사하는 진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교직이수 대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학습을 통한 인식변화는 수강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경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학교폭력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7]학령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대학생의 자기표상 변화과정에 미치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이나 [8]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대학생이 인식한 학교폭력 극복방법과 시사점 및 사례연구 등 과거 피해 경험과 관련된 내용과 [9]대학생 학교폭력 주변인의 인식을 연구한 내용 등이 있으며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교대생의 인식과 교육적 요구에 있어서 성별과 학교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는 연구와 [11]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수업을 통한 학교폭력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10]교대생의 인식과 요구분석 연구에서는 교대생의 학교폭력 인식에 있어 폭력 유형별로 서로 다른 성차가 존재하며 학창시절 학교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시사되었으며 [11]예비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수업을 통한 인식변화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수업 전에는 학교폭력 노출경험 또는 주변인과 여러 매체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수업 후에 그 심각성과 유형,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은 지식과 이해, 경각심의 고취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인식과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점적으로 폐쇄형 질문방식을 취한 설문 응답을 통한 조사방법으로 학교폭력예방수업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 인식변화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습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변화의 과정을 질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학습의 과정이 그들의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장래 교육현장에서 아동, 청소년들과 만나게 될 대학생으로서 바람직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인식변화 제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들과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이수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학교폭력 관련 학습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학교폭력 관련 학습 이후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역할인식과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School Bullying)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가하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신체

적. 심리적인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성적인 폭력, 조롱과 모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일반성인의 범죄 유형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학교 내 청소년인 학생들과 집단을 통해서 발생 되는 특징이 있다.

[1]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 결과(2021.9)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으로 피해 유형별로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스토킹(6.2), 금품갈취(5.8%), 강요(5.4%), 성폭력(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 유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의 응답건수는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 비중은 증가하였고 중.고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에 비해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은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0.4%로 2020년 대비 0.1%증가하였으며 가해 학교급별 응답률 역시 중.고등 학교에서 동일하거나 감소한 응답률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0.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언어폭력의 저 연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9.2%로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며 이 중 피해 경험률은 15.1%, 가해, 피해 모두 경험률은 8.3%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경험 유형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과 SNS와 온라인 게임을 통한 언어폭력 순으로 피해를 응답하였다.

2. 학교폭력 관련자

학교폭력의 발생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다양한 주변인이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특성 중에는 [14]부모의 지배적이거나 일방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감정이 억압되어 공격적인 성향과 함께 내면의 분노감정을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표면적 모습과 다른 자기방어 수단으로서의 폭력과 협박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행동특성 경향과 때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친사회적 행동과 괴롭히는 행동을 모두 사용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경우 [14]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형을 수동적 피해자와 도발적 피해자로 구분할 때, 수동적 피해자의 경우 수동적이고 유약한 태도 및 낮은 자존감으로 무기력, 수동적, 복종적인

반응이 강하여 가해자의 공격성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도발적 피해자의 공통된 특성은 잘난 척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흔히 불안과 공격적인 반응을 함께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따돌림의 피해자이지만 따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피해/가해 집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되며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결국, 각자가 갖는 심리적 역동은 상황에 따라 여러 역할로 나타나게 된다. 학교폭력에서 주변인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동조자는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가해자를 동조하며 가해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다. 강화자는 학교폭력 상황의 주변에서 가해 행동을 부추기는 욕설이나 야유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해 행동을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15] 주변인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해 행동 강화에 영향을 주는 동조자와 강화자의 경우, 가해 행동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가해자 옆에서 가해 행동을 부추기거나 동조함으로써 가해 행동을 지속 하거나 강화하기도 하며 이들은 집단 압력에 동조하고 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방관자는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하고도 마치 아무 일이 없고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이 행동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체하거나 별다른 행동 없이 가해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특성은 폭력 행동에 대해 자기방어적 태도와 무관심한 태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 과오로 귀인하는 경향과 함께 회피와 불안이 높고, 내재적 종교성향 및 친사회적 행동 및 도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변인인 방어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 행동을 중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가해 행동의 감소에 기여하는 학생들로 이들은 규범 지향적 태도를 보이며 도덕성과 공감 수준, 정서조절 능력, 사회적 자기효능감, 자기 주장력, 감사,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방어자의 역할은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가해 행동의 약화, 중단 영향으로 방어자의 도움이 없는 경우보다 피해자의 우울, 불안 감소, 자존감 유지와 친구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현장에서 긍정적 상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접근과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적 주변인들로 하여금 방어자 역할의 전환을 위한 인식변화에 대한 개입과 노력이 지속될 경우 학교폭력 현장에서의 가해 행동과 피해 범위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직이수 대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학습의 기대효과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상황에서 교사의 대처를 중요하게 본다[15]. 예비교사의 역할을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예비교사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과목을 교직이수를 위해 반드시 수강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하였다[18].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더라도 교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예비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 유형 및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경각심의 고취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7].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 수준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교사의 개입 수준이 높은 경우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되거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관심과 대처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교직이수 과목인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통한 학교폭력 원인의 탐색, 대처방법 익히기, 인식의 변화는 현장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할 담당자에게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한다[7]. 이러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강조한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 감지하여 면담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사전조치를 취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19].

또한, 예비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을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만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친구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김정남(2013)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중 특히 갈등조정영역에서 교직과목(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이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예비교사의 대처능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19] 이는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위 과목의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교사로서의 대처에 대한 자신감 고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 모집을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K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관련 연구에 대하여 안내한 후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생별 학교폭력 경험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참여자	성별	학년	전공학과	학교폭력 경험 유무여부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A	여	4	간호학	주변인
B	여	4	간호학	피해자 경험
C	여	4	간호학	주변인
D	남	4	간호학	주변인
E	여	4	간호학	주변인
F	여	4	간호학	주변인
G	여	4	간호학	피해자 경험. 주변인
H	여	4	간호학	주변인
I	남	4	간호학	피해자 경험. 주변인
J	여	4	간호학	주변인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의 일반적인 연구절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자료수집,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연구는 연구 참여자 주도형 연구방법으로 사전준비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효과

적인 역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2학기 개강 첫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포토보이스 적용사례를 통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사진촬영 방법 및 안전, 인권침해 등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동의절차를 확인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업과 과제 수행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로운 토의를 가졌으며 사진촬영 주제인 연구문제는 대학생으로서 평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습한 이후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처방안 및 역할에 대한 것이다.

나.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수업참여<부록1 강의내용 참조>와 함께 과제제출 및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COVID-19로 인하여 단체모임이 제한되는 시기였으므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연구참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주제별로 자유롭게 사진촬영을 하였다. 촬영한 사진 중 대표적인 사진을 선정하여 사진별 제목과 선정이유, 찍은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였다. 사진촬영 기간 동안 의문 사항이 있을 때 연구자와 자유롭게 연락하였고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연구문제별로 과제제출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개별 발표와 성찰 및 소감을 나누었다.

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포토보이스 분석방법(Wang and Burris, 1997) [18]에 따라 사진선정(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범주화(codifying)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포토보이스는 공동체 기반의 참여 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로서[19] 포토보이스 내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직접 촬영하고 서술하며, 사진 서술을 통해 연구자와 외부자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즉, 포토보이스에서 사진의 활용은 대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변화과정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며 연구 참여자가 직접 학교폭력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 생각을 표출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연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성찰, 공동연구자로서의 적극적 개입과 주도적 참여 방식의 의미가 있다. 사진선정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촬영한 사진 중에 연구문제와 가장 부합되고 공감되는 사진을 발표와 합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맥락화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표현한 연구문제에 대한 의미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서로 비교 분석하고 해석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범주화단계에서는 맥락화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코딩 하였고 연구문제와 연결하면서 내용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타당화를 높이기 위해 포토보이스를 포함한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내용을 검증하였다.

3. 연구윤리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의 주제는 첫째, 연구의 주체는 연구 참여자임을 알리고 참여자가 직접 사진을 찍고 집단토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함께 사진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이 있으므로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우선하였다. 둘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와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촬영된 사진과 작성한 글들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넷째, 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사진, 녹취자료의 안전 폐기 및 저작권에 대한 고려 및 윤리교육을 강조하였다.

IV. 연구 결과

포토보이스 연구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학습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연구 주제에 의해 총 11개의 범주와 2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1. 교직이수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과제와 사진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이 도출해낸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은 피해 경험자로서의 나, 주변인으로서의 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이라는 4개의 범주와 10가지 주제로 나타났으며 <표 3>과 같다.

가. 학교폭력 피해자 경험자로서의 나

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문제는 그 양상에 따라 학교폭력인지의 여부가 모호함 따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친구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역시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으나

정정애 등 /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 교직이수 대학생들 중심으로 -

〈표 2〉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결과 11개의 범주 및 25개의 주제

연구문제	범주	주제	의미단위
교직이수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피해경험자로서의 나	피해자로서의 고통과 괴로움	반 친구들로부터 험담과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존감 저하,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무서워함.
		피해자의 무력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가해 행위로 참여자 역시 일반적인 피해를 입어도 저항하지 못함
		중개하지 못한 괴로움	친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비방하는 사이에서 서로에게 가해자와 피해 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립적인 입장으로 중재 하지도 못했던 괴로운 기억.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고 불행하고 우울한 기억
	주변인으로서의 나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방어자가 되면 자신도 피해자가 되어 고통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은근히 진행되는 폭력피해의 목격자	장난으로 시작된 놀림이 학급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비웃음과 무시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봄
		방관자 경험	학교폭력 상황들을 여러 번 목격하고도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타까움을 느껴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경각심이 무너짐	직접적인 폭행이나 급품 갈취 등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 들만 폭력 이라 생각함.
		범죄행위임을 인식	친구를 괴롭히며 권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항상 있어도 처벌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문제인 식을 느끼지 못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너진 것 같음.
		지인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 에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듣고 학교폭력이 큰 범죄임을 인식	학교폭력의 가해행위는 피해자를 위축되게 하고 심한 자책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한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학교폭력이 나쁜 것으로 알아도 빈번하게 일어남을 목격함. 가해자의 장난도 피해자에게는 괴롭힘과 폭력일 수 있음.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음	앞에서 볼 때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음. 가까이 보지 않 으면 모르고 넘어갈 문제 상황들이 많음. 급식을 혼자 먹거나 활동시간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소극적 성 격 때문일 것으로 생각함
학교폭력 관련 학습을 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	학교폭력실태 인식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됨.
		학교폭력 징후의 조기 발견	교사로서 폭력징후의 조기감지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관찰기술, 대상별 징후 발견, 평가 및 검사, 감지 후 대처방안
		피해자, 가해자 요인의 이해	피해자 및 가해자 요인의 이해와 파악, 정서 행동적 특징과 학교폭력 의 상관성,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 이해
	학교폭력 관련자에 대한 발달적 이해	공감적 의사소통 필요성	교사로서의 자세와 역할,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학교폭력 관련자 이해와 지도에 대한 관심	학교폭력 관련자에 대한 발달적 이해	도덕성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이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을 통한 인지기, 도덕적 발달과정 성취의 중요성 초·중고 재학생의 발달 단계별 학교폭력 유형 이해로 중점적으로 예 방해야 할 사안에 초점
		대상자의 입장 이해 확대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 중심의 관점 확대와 방어 자 역할의 중요성 인식
학교폭력 관련자 이해와 지도에 대한 관심	학교폭력 관련자에 대한 발달적 이해	대상자의 입장 이해 확대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 중심의 관점 확대와 방어 자 역할의 중요성 인식

〈표 2〉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결과 11개의 범주 및 25개의 주제 (계속)

연구문제	범주	주제	의미단위
학교폭력에 대한 학습이후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역할인식과 대처방안 인식	직접적 개입과 행동	관련자들의 입장을 경청함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 완벽한 타인이 되어 경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상황개입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개입행동을 하겠음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태도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역할 이행 의지	가해행동의 중단과 피해자 위로 등 방어자의 입장에서 상황의 약화와 중단을 도울 것임
		관련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 확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가해학생을 지도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방관자 입장을 벗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교직이수자로서의 역할	주의 깊은 관심과 지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공감적으로 바라보고 주변인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해자일 수 있음을 알게 됨. 가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음
		성장을 위한 노력	세심한 관심과 관찰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지도와 처벌, 편안한 상담과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로 2차 예방이 중요함.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지도함
	학교폭력 예방자	인성함양 지도와 방어자 역할교육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관계나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싶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동참 및 연대 활동	교직이수자로서 학생들의 관계나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으로 소통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를 알리도록 지도함 방관적 학생들을 교육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고 방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표 3〉 교직이수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범주	주제	의미단위
학교폭력피해 경험자로서의 나	피해자로서의 고통과 괴로움	반 친구들로부터 험담과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존감 저하,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 가기 무서워함.
	피해자의 무력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가해 행위로 참여자 역시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도 저항하지 못함
	중재하지 못한 괴로움	친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비방하는 사이에서 서로에게 가해 자와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립적인 입장으로 중재 하지도 못했던 괴로운 기억과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고 불행하고 우울한 기억
주변인으로서의 나	피해자가 될 지 모르는 두려움	방어자가 되면 자신도 피해자가 되어 고통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은근히 진행되는 폭력피해의 목격자	장난으로 시작된 놀림이 학급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비웃음과 무시 대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봄
	방관자 경험	학교폭력 상황들을 여러 번 목격하고도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타까움을 느껴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음 직접적인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 들만 폭력이라 생각함.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경각심이 무너짐	친구를 괴롭히며 권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항상 있어도 처벌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너진 것 같음.
	범죄행위임을 인식	지인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듣고 학교폭력이 큰 범죄임을 인식함 학교폭력의 가해행위는 피해자를 위축되게 하고 심한 자책 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한사람의 평생 좌우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학교폭력이 나쁜 것으로 알아도 빈번하게 일어남을 목격함. 가해자의 장난도 피해자에게는 괴롭힘과 폭력일 수 있음.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음	앞에서 볼 때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음. 가까이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문제 상황들이 많음. 급식을 혼자 먹거나 활동시간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소극적 성격 때문일 것으로 생각함

당시에는 학교폭력인지 모르고 힘들어 했던 경험이 있었다(<사진1>). 그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닷가의 작은 섬처럼 혼자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였다(<사진2>).



사진 1. 소외감

“남학생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여러 친구들의 험담과 따돌림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꼈으며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신을 비하하며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무서웠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참여자B>



사진 2. 외로운 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당하지 않을 때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 자신에게 크나큰 무력함의 충격으로 다가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저 바닷가에 있는 섬처럼 혼자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참여자I>

나. 주변인으로서의 나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참여자들 가운데는 직접적인 폭력 피해자는 아니어도 서로 다투는 친구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고<사진3> 집단적 가해자들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따돌림 하는 것을 보고도 그 친구를 도울 경우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하였다(<사진4>). 또한 서서히 시작된 괴롭힘 행동이 폭력임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방관적 태도를 지니기도 하였다(<사진5>).



사진 3.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툰 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애매하게 중립적인 입장이라서 서로 비방하며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양쪽 친구험담을 모두 들어 주어야 해서 너무 힘들었으며, 그 기간 동안 학교와 관련된 어떤 것도 관심이 가거나 즐겁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참여자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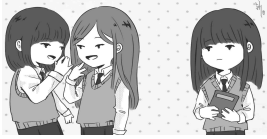


사진 4. 은근한 따돌림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무리에서 은근히 걸들게 되는 ‘은따’가 가장 무서운 것 같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왜인지 모르게 나를 뒤로 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무서웠다.”<참여자E>



사진 5. 파도

“교실 안으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잔잔히 시작 되었다. 점점 들어 온 물은 학생들이 눈치 채지도 못하게 교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에 의해 숨쉬기 힘들어하며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참여자H>

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일부 참여자의 학교에서는 지역 내 폭력서클의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금품 갈취나 여러 유형의 서들을 시키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있었다. 교사와 학교 차원의 무관심으로 참여자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학교 내 주변인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무뎠음을 이야기하였다(<사진6>). 이런 상황은 주변에 목격자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으로 이어질 수 없어 피해자의 고통과 괴로움은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참여자의 경우 지인의 경험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성인이 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통해 학교 폭력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사진7>).



사진 6. 빵 서들

“교내 일진 학생들의 폭행이나 금품갈취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빵을 사오라고 시키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학교차원의 처벌이 없었고 가해자와 주변인 대부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무뎠진 것 같다”<참여자C>



사진 7. 아픈 사람

“지인의 아들이 동성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성폭행을 당하고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게 되고 자살시도도 몇 번이나 했어요. 현재 30대지만 직장생활도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의 큰 범죄로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참여자A>

라.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예방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은 교내·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점점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해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드러내거나 인정하기 싫어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말 못할 괴로움을 느낄 수 있기에 주변인들의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사진9>).



사진 8. 당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

“학교폭력이 나쁜 것으로 알아도 빈번하게 일어남을 목격하였으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고 재밌어서 한 거라고 말은 하지만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전혀 재미있지도 즐거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장난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즐겁고 재미없다면 그건 괴롭힘이고 폭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D>



사진 9. 아무도 모른다

“앞에서 볼 때는 웃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에 더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해야 한다.” <참여자E>

2. 학교폭력 관련 학습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에 대한 학습 이후 참여자들이 도출해 낸 학교폭력의 인식으로는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 ‘학교폭력 대상자에 대한 발달적 이해’, ‘학교폭력관련자 이해와 지도에 대한 관심’이라 3개의 범주와 7개의 주제로 <표 4>와 같다.

가.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관심과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와 주변인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특히 방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갈수록 변화하고 있는 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를 조기발견

〈표 4〉 학교폭력 관련 학습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범주	주제	의미단위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	학교폭력실태 인식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됨.
	학교폭력 징후의 조기 발견	교사로서 폭력징후의 조기감지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관찰기술, 대상별 징후 발견, 평가 및 검사, 감지 후 대처방안
	피해자, 가해자 요인의 이해	피해자 및 가해자 요인의 이해와 파악, 정서 행동적 특징과 학교폭력 의 상관성,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 이해
	공감적 의사소통 필요성	교사로서의 자세와 역할,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학교폭력 관련자에 대한 발달적 이해	도덕성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이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에릭슨의심리사 회적 발달이론을 통한 인지적, 도덕적 발달과업 성취의 중요성 인식 초·중·고 재학생의 발달 단계별 학교폭력 유형 이해로 중점적으로 예 방해야 할 사안에 초점
학교폭력 관련자 이해와 지도에 대한 관심	대상자의 입장 이해 확대 생활지도와 전인적 발달의 중요성 인식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 중심의 관점 확대와 방어 자 역할의 중요성 인식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도 관심을 가지는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폭력의 예방 및 학업, 진로, 인성 등 전인적 발달에 대한 관심

하고 평가,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사진10>).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기 위해 각 자의 입장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역할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사진11>).



사진 10. 점심시간

“교사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혼자 급식을 먹거나 자주 먹지 않거나 빨리 먹는지 관찰하여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참여자A>



사진 11. 가정에서 학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연구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50% 이상이 성장과정에서 보호자의 가혹행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가정 내의 문제 행동이 학습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참여자E>

나. 학교폭력 관련자에 대한 발달적 이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도덕성, 인지발달, 사회 심리 적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목표로 교육하는 것은 인습적 도덕성 수준의 습득과 올바른 가치 기준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사진12>).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변인들과의 관계 양상의 특성, 또래의 영향력 등을 이해할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보다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특정 시기에 더 많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이해함으로써 보다 중점적인 예방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사진13><사진14>).

발달 단계	인성 양성의 목표	인성 양성의 내용
1단계	기본 도덕성	기본 도덕성
2단계	기본 도덕성	기본 도덕성
3단계	기본 도덕성	기본 도덕성
4단계	기본 도덕성	기본 도덕성
5단계	기본 도덕성	기본 도덕성

사진 12. 성격발달단계

“청소년은 성장 발달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발달목표가 있음을 알았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인습적 수준의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질 때 사회의 안녕과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B>



사진 13. 무의식의 세계

“교사는 학생의 현재의 문제 이해를 위해 과거의 경험과 내재되어 있는 성적, 공격적인 충동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과 충동을 통찰력을 갖고 인식하고 현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참여자C>



사진 14. 학교폭력의 여러가지 유형들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왜 청소년들이 유독 학교폭력이 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징과 어려움 등을 이해해야 함을 느꼈습니다.”<참여자D>

다. 학교폭력 관련자 이해와 지도에 대한 관심

학습 이전과 달리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인들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주변인 중에서도 강화자나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더욱 늘어나야 함을 인식하였으며<사진15> 또한 가해 행동을 막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생활지도와 함께 교과 올바른 가치기준을 함

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진로교육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사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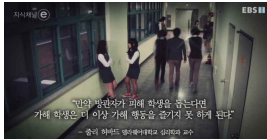


사진 15. 방어자의 힘

다수의 방어자가 많이 생긴다면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교직이수자로서 나는 방관자들이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해 방어자가 가진 힘을 보여주며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참여자A>



사진 16. 인성교육의 필요성

“저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인성교육 이나 수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D>

3. 학교폭력 관련 학습 이후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역할인식과 대처방안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학습이후 학교폭력 상황의 다양한 요인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인지한 자신의 역할을 통한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한 내용은 ‘직접적 개입과 행동’,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태도’, ‘교직이수자로서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자’라는 4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로 도출되며 <표 5>와 같다.

가. 직접적 개입과 행동

참여자들 중에는 학교폭력상황이 발생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 경청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생각하고 객관적 사실 확인과 더불어 각자의 입장에서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 상황을 스스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사진17><사진18>).



사진 17. 상담

“상담이 활성화되어 피해학생이 겪고 있는 학교폭력의 아픔을 공감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참여자A>



사진 18 정황조사

“학교폭력 발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참여자C>

<표 5> 학교폭력 학습이후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역할인식과 대처방안

범주	주제	의미단위
직접적 개입과 행동	관련자들의 입장을 경청함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 완벽한 타인이 되어 경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상황개입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개입행동을 하겠음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태도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역할 이행 의지	가해행동의 중단과 피해자 위로 등 방어자의 입장에서 상황의 약화와 중단을 도울 것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가해학생들 지도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방관자 입장을 벗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관련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 확대	그동안 무관심했던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공감적으로 바라보고 주변인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서는 또 다른 가해자일 수 있음을 알게 됨. 가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음
교직 이수자로서의 역할	주의 깊은 관심과 지도	세심한 관심과 관찰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지도와 처벌. 편안한 상담과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로 2차 예방이 중요함.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지도함
	성장을 위한 노력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관계나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싶음.
학교폭력 예방자	인성함양 지도와 방어자 역할교육	방관적 학생들을 교육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고 방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동참 및 연대 활동	캠페인참여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의 위험을 알리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영향을 주기

나.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태도

일부 참여자들은 이전의 경험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가해행동이 중단될 수 있는 행동과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방

어자의 자세를 통해 상황의 학교폭력 상황의 약화와 중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가해행동에 맞서는 적극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사진19>). 또한 적극적 방어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사진20>).



사진 19. 용기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와 동조자의 존재만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가해행동에 동참 하거나 부추기지 않고 방어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 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어자가 되도록 용기를 내자!” <참여자E>



사진 20. 또래상담

“학교 다닐 때 또래상담프로그램이 있었다. 또래 상담가들에게 교육을 같이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래상담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J>

다. 교직이수자로서의 역할

참여자들 중에는 학창시절 보복성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관자에 머물렀던 자신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직이수자로서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가해자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는 마음, 피해자 입장에서 방관자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등 학교폭력 관련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사진19>).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으며<사진20>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직접 도울 수 있는 용기와 폭력피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의 깊은 관심과 관찰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의 징후를 식별, 잠재적 피해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보다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사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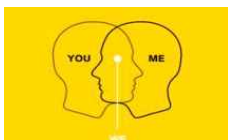


사진 19. 공감과 소통

교직이수자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가해자를 나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인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해자일 수 있음을 알았다. <참여자J>



사진 20. 교생실습중 학생들의 쪽지

“실제로 내가 친구들과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는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어도 교실 안에서 티도 내지 않았고 다가와 준 선생님도 없어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학생들과 교실 분위기를 파악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편안한 소통과 상담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꺼이 손내밀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참여자G>



사진 21. 관심과 관찰

집단(학급)내 학생들의 관계나 분위기를 수시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에 관해 용기 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폭력을 알게 된 학생들도 반드시 교사에게 말씀드리도록 지도한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참여자H>

라. 학교폭력 예방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습과정에서 주변인 중 방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였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거나 자신과 무관한 일로 인식하여 방관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사진23>). 또한 성장기의 학생들이 가지는 폭력에 대한 인식은 비단 학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 뿐 아니라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동참행동을 하고자 하였다(<사진24>).



사진 23. 방관자교육/집단상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집단상담)프로그램을 계획 하여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여자C>



사진 24. 캠페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자J>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직이수 대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탐색하여 바람직한 대처방법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교직이수 대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습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습이후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역할인식과 대처 방안이라는 연구문제에 따른 11개의 하위범주와 2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경험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양했다. 학교폭력 직접적 피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간접적 피해자나 주변인의 경험을 했던 경우에 비해 소외감과 두려움, 무력감, 자기비하, 자존감 저하 등 내면의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의 부정정서를 더 많이 생생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자의 경우 친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문제가 따돌림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중재도 할 수 없었던 괴로움으로 인해 불행하고 우울했던 학교생활을 회상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정정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와 주변인이 갖는 심리적 고통과 주변인으로서 방관자 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되풀이하며 학교폭력의 직접관여와 관계없이 그 이상으로 정신 건강 위험을 예측한다[20]는 연구결과에 부합된다. 이는 대학생도 과거 주변인과 비슷하게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부재한 것과 같은 상태로서, 주변인들이 피해자 이상으로 우울을 경험하며 [20], 피해자를 돕지 않은 행동에 대한 실망감, 수치심을 갖는다[21]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주변인의 경험을 했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당시의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상황을 목격하고 인지하게 된 후에도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방관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직접적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폭력이라 생각하는 단순한 인식과 가해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했으며, 교실 내에서 대수롭지 않게 시작된 놀림들이 시간이 경과 하면서 서서히 따돌림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반복되는 일상적 학교생활의 한 부분처럼 인식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방관자가 되어버린 경험을 회상하였다. 학교폭력의 발생시기부터 발생 후 개입 및 처리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참여자들조차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각심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주변인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음을 인식 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습 초기에 각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자를 자신과 무관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다양한 역할의 주변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0] 학교폭력은 가해자 특성의 요인과 피해자 특성의 요인들 외에도 주변인의 역할 인식과 태도에 따라 가해 행동과 피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집단 내 방어자가 많아질수록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과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인식하는 수준의 깊이와 폭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더불어 예비교사로서의 자각을 하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한 구체적 개입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자 모색하는 변화된 인식수준을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학교폭력 인식변화 연구[11]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학교폭력을 개인간의 문제로 인식했던 관점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체계요인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예방의 필요성과 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교직 과목을 수강한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대처방안으로써 예방과 개입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9] 학교폭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식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사의 관심과 의지가 학교폭력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모든 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학생들의 정서 행동적 특징과 학교폭력의 상관성,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포함한 피해자 및 가해자 요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학교폭력 징후의 조기발견과 개입, 대처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성함양지도를 통해 교사와 예방자로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21] 학교폭력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 맥락적 이해의 전반적 증가와 교사의 역할 및 전문성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넷째, 교직이수자로서 참여자들은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신과 무관하게 생각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을 확대시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성찰하며 필요시 사회적 동참과 연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직이수 대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학습은 단순한 주관적 경험에 의한 인식에 머물러 있던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적동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학습의 과정에서 각 참여자가 사진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감정과 생각을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마음을 다짐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은 학습과정에서 참여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가치의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일한 학습과정에서도 지식적인 영역확대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통해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폭력 경험이 대부분 주변인(방관자) 경험에 치우쳐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관련 학습을 통한 인식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예방활동과 개입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인지적 학습 효과와 행동적 학습 효과의 상관성 연구를 제언해 본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사진은 언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하는 것으로 참여자만의 고유한 경험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기관의 홍보와 교육 안내 자료들을 인용하여 사진을 대체함으로써 참여자 자신의 경험의 표현 보다는 객관적 설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참여자 사진 촬영 및 선정 시 주관적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사진 선정에 대한 안내가 더욱 강조된다.

대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을 지난 초.중.고 시기의 부정적 기억으로만 인식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어느 곳이든 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될 교직 이수 대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 대처능력은 청소년들의 인식과 그들의 성장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는 중요하다. 교직이수 대학생들에게 학교폭력관련 학습의 과정에서 사진을 통해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학습의 의미를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예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교육부 (2021) 학교폭력 실태조사. Ministry of Education (2020) Survey on School Violence.
2. 김세원 (2018)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VOL. 54>. (Kim Se Won(2018) The long-term effects of being bullied or a bully in adolescence on development outcomes in early adulthood.)
3. 김경석 (2016).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겪은 성인의 심리현상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kyoungSuk Kim(2016) Psychological phenomena in the school-aged adults experienced school violence experience.)
4. [10대 학교폭력] 때릴 땐 어른, 처벌땐 아이 소년법 논의 붓물(부산경남대표방송KNN, 2017.9.7.) [http://www.knn.co.kr/\(2017. 9 .7\).](http://www.knn.co.kr/(2017. 9 .7).)
5. 교묘해진 학교폭력... 네티즌 “축법소년법 폐지해야”(굿모닝충청, 2021. 3. 6.) [http://www.goodmorningcc.com/news\(2021.3.6\).](http://www.goodmorningcc.com/news(2021.3.6).)
6. 정부관계부처합동 (2012.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Joint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2012.2)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7. 임정란 (2019) 학령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대학생의 자기표상 변화과정 탐구. Lim Jeong-ran (2019)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t school age explores the process of self-representation change of college students.
8. 고경은 (2016).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대학생이 인식한 학교폭력 극복방법과 시사점 <학교사회복지2016Vol.35>. Ko Kyung-eun (2016). How to overcome school violence and suggestions recognized by university students through her experience of student loss.
9. 손강숙, 정소미 (2019). 대학생 학교폭력 주변인의 인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7권2호>. (Son Kang-sook and Jeong Somi (2019). Study on Perception of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School.)
10. 송재홍 외 (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의 인식과 요구 분석 <초등상담연구>. Song Jae-hong and others (2013). Analysis of Ryeotoc's Perception and Requirement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11. 김하영, 양재영, 이상민 (2018).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학교폭력 인식변화 <한국체육과학회지2018.Vol.27.2>. (Kim Hayoung, Yang Jaeyoung, Lee Sangmin(2018).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Change on ScViolence Through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urse. The Korea Sports Science Association, 27, 2.)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시행 2021. 6. 23.)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No. 17668, partially revised and

enforced on December 22, 2021.

1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1.2.4.). 2020 사이버폭력실태조사.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Press Release (2021.2.4.). 2020 Cyber Violence Survey.)
14. 이순지 (2019). 학교폭력 피해·가해 중복 경험 학생을 상담한 전문상담교사의 경험 탐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un Jee Lee (2019). Exploring the Experience of a Professional Counselor who consulted students with multipl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15. 주지선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주변인 행동 유형에 대한 생태 체계적 요인의 영향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Ju Ji-sun (2017). Effects of Ecosystem Factors on Types of Behavior Around School Violence.
16. 박효정 외 (2016).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III):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원체제 구축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한국교육개발원). (AbstractStudy of shaping the school climate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III)Hyo-Jung Park Hyun-Jin KimChong-Min KimJi-Yeong ChoiSu-In kim.)
17. 김정남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초등교사의 역량과 대책의 효과성 분석<경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Jeong-nam (2013). An analysis of the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18. 임윤서 (2018). 대학생의 시선을 통해 본 청년 세대의 불안경험: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8(1), 105-152. (Lim YunSeo(2018) Anxiety Experiences in the Youth through the Gaze of University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Using Photovoi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18(1), 105-152.)
19. Wang, C. and Burris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4(3), 369-387.
20. Rivers, Poteat, Noret, & Ashurst (2009). Observing bullying at school: The mental health implications of witness statu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4), 211-223.
21. Ahmed, E. (2005). Pastoral care to regulate school bullying: shame management among bystanders. Pastoral Care in Education, 23(2), 23-29.
22. Farrell, A. D., & Vulin-Reynolds, M. (2007). Violent behavior and the science of prevention. In D. J. Flannery, A. T. Vazsonyi & I. D. Waldman(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violent behavior and aggression (pp. 767-786).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교직과목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학습 내용

-
-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생의 이해
 - 1주차 학교폭력의 이해
 - 2주차 학교폭력의 실태 및 법규
 - 3주차 학생의 이해 및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 4주차 학생 정서행동의 문제
 - 5주차 학생생활문화와 비행의 사회심리학적 관점
 - 6주차 학교폭력의 다문화 관점
 - 8주차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의 이론
 - 9주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
 - 10주차 학교폭력의 조기감지와 평가
 - 11주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실제
 - 12주차 학교폭력 처리 절차
 - 13주차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상담
 - 14주차 학교폭력 개입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
-